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신 현 택 (국립중앙도서관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핵심 지식기반시설인 국립중앙도서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 국립중앙도서관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정보화의 물결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도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정보욕구도 날로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도서관은 지적 자산의 총집합체로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축적·제공해주는 중심 기지가 되어야 하며, 사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지식경영자, 정보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세기를 알리는 2000년은 우리 도서관인들에게는 도서관의 중흥을 알리는 희망과 도약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 추진으로 우리의 도서관계도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중추적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도서관 정보화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의 확충과 서비스 기반 조성,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서비스환경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자료 종합목록, 목차정보, 원문정보 등 콘텐츠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구축한 원문 DB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에 보급하고, 윈도우 환경의 공공도서관 표준자료 관리시스템(KOLAS II) 및 국가자료 공동목록시스템(KOLIS-NET)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21세기 정보환경을 주도해 갈 국내 도서관 정보화의 거점을 확보하고 디지털 정보 공급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이후의 도서관 정보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유일의 국가문헌 보존도서관으로서 400여만책 수장 능력의 『자료보존관』을 신축 개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문헌의 효율적인 관리와 영구 보존을 위해서 과학적 보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보존체계 구축도 서둘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도서관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사서는 지식의 획득과 정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체 지식 프로세스를 설계·관리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계획된 정보화 특별교육을 신설, 금년 3월부터 실시하고 각종 연수시설과 장비 및 적합한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서 저는 우리나라 도서관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발전시키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서관인 모두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